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12 **12** 2016

수십억 *년의 나이가 나오기까지*
숨어있는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측정 방법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들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각 지층이 수백만–수십억 년의 나이를 말하므로 지구가 이와 같이 오랜 연대를 지지해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긴 연대들이 논문에 실리기까지 수많은 전제와 편견에 의해 선택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 그 선택되는 여러 과정 가운데 몇 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P.O.Box 819, Norwalk, CA 90650 / TEL 562 868 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1. 지질시대표가 사실이라는 전제

기본적으로 진화론자들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식의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가 과거의 역사라고 의심없이 신뢰하며 시작한다. 이것이 이들이 신뢰하는 첫 단계이며 가장 큰 전제라 할 수 있다. 지질시대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1872년 찰스 라이엘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구상에 이런 지질시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지구상에 발견된 화석들을 진화론적으로 책에다 모아 놓은 일종의 진화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1900년 중엽에 등장했으므로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를 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900년에 접어들면서 지질학자들은 지질시대표를 보며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여겼으며 지질학계 안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거대한 전제가 되어버렸다.

2. 연대측정의 방법의 선택에서 보이는 순환 논리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각각 반감기가 있다. 기존의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여(과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붕괴'라고 표현한다) 반으로 줄어드는 속도다. 이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것에서부터 수백억 년이 되는 아주 긴 것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지질학에서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원소의 예를 들자면, C14–N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즉 어떤 동식물이 죽은 지 5730년이 지나면 그 유기물에 C14의 양이 반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이 남아있는 C14의 양으로 연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그 유기물 속에 C14의 양이 많으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며, 적으면 그만큼 오래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화성암(용암에 기원을 둔 암석)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원소들의 각 반감기를 보면 Rb–Sr은 49억 년, U–Pb은 45억 년, K–Ar은 12.5억 년 등과 같이 아주 길다. 이런 수십억 년의 아주 긴 반감기가 의미하는 바는 Rb, U, K 등의 붕괴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십억 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주 느린 기간이다. 이런 긴 반감기 때문에 이 원소들은 수천 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 양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원소는 젊은 연대를 가졌을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반면에 긴 반감기를 가진 원소들은 오래되었다고 가정되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C14 방법은 5만년 정도만 지나도 그 유기물에 측정 가능한 C14가 남아있기 어려우므로 5만년 보다 젊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반감기가 긴 Rb, U, K 등은 수백만 년 보다 오래되었다고 여기는 암석을 대상으로 사용된다. 또한 그 원리 상 짧은 반감기의 원소로는 젊은 연대가 나오게 되고, 긴 반감기의 것으로는 긴 연대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연대 측정의 기본 가정 중에 초기 값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여기서는 이 초기값에 대한 가정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의 '노아홍수 콘서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연대 측정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미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여기는 신뢰에 이어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전제이다. 즉 측정 대상에 대한 가정된 연대에 따라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측정에 사용된 원소의 반감기가 짧으냐 기냐에 따라 그 결과 역시 짧게 혹은 길게 나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젊다고 여기기 때문에 짧은 반감기의 원소로 측정하여 젊은 연대가 나온 것을 수용하고, 한편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긴 반감기의 원소로 측정하여 오랜 연대가 나온 것을 수용한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자신들이 가졌던 전제를 망각하고 예측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스스로 긍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순환 논리라고 말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정도 하고 수용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발생한다. '짧은 반감기의 원소를 가지고 진화론적으로 오래되었다고 여기는 것들을 측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반대로 긴 반감기의 원소를 가지고 최근의 암석들을 측정하면 어떨까?'이다. 이는 아주 좋은 검증 방법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지질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왔다. 그 결과는 그 실제 나이와 관계 없이 젊은 반감기를 가진 원소들로 측정하면 젊은 나이를, 긴 반감기를 가진 원소들로 측정하면 오랜 나이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짧은 반감기인 탄소를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수백만에서 수십억 년이라고 여기는 화석들을 분석하면 충분한 C14가 남아있어서 언제나 수천에서 수만 년의 젊은 연대를 보여준다. 반면 수십억 년의 긴 반감기를 가진

원소로 최근 화산 폭발한 화산암을 측정하면 수천만 년 이상의 긴 연대를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기존의 오랜 연대가 틀렸거나, 아니면 방사성 연대 측정 원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C14 방법은 탄소가 함유된 유기물이 주로 측정 대상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C14 방법은 C14의 짧은 반감기 때문에 수십만 년 이상 오래된 것들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지질시대표 상에 진화 순서로 수천만에서 수억 년 되었다는 화석의 나이는 그 화석들을 직접 측정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다. 단지 진화 역사의 신뢰로 화석을 순서적으로 모아 직접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를 결정해버린 것이다!

3. 지질시대표에 적혀 있는 연대와 일치하는 것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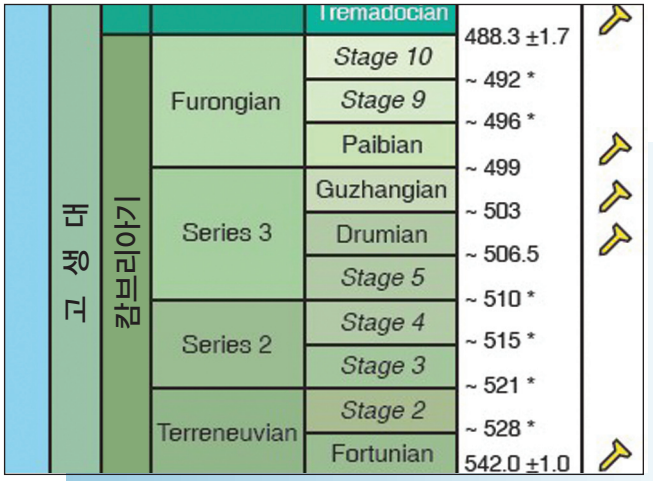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시작부터 존재하지 않은 지질시대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할 뿐 아니라, 실제로 측정 방법 자체에도 심각한 가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수치와 일치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다. 이런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대부분 논문에 수록되지 않은 채 실험실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지질시대표에 적혀 있는 수치와 근접한 결과만이 발표되며, 대부분은 지질시대표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이것 역시 지질시대표의 연대가 옳다는 전제 하에 선택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측정된 그대로 발표하면 안되지요?"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 지질학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이미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라는 전제가 지질학계 안에서 너무 견고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와 어긋나는 연대를 갖고 논문지에 채택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질시대표와 불일치하는 수치를 얻을 경우에 논문 저자들은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택해야 한다. 자신의 데이터가 옳기 때문에 기존 지질시대표의 연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득력 있는 논문을 쓰던지(아마도 이런 논문이 있다면 정말로 방대할 것이다), 아니면 지질시대표에 일치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측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지질시대표의 연대를 반박하며 자신의 논문이 채택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후자를 택하게 된다. 이런 선택은 지질시대표의 신뢰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뿐 아니라 논문 저자 역시 자신의 측정 결과보다 기존의 지질시대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지질시대표와 일치하지 않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실험실에서는 이런 결과는 원인 모를 오염의 결과일 것이라고 자료값 폐기 이유를 합당화 시킨다. 실제로 왜 샘플들의 연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질학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란 그 샘플 속에 남아있는 원소의 양 뿐이기 때문이다. 이 원소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으며 지질학자들은 이 남아있는 양 만을 갖고 그 나이를 추측만 할 뿐이다.

만약의 어떤 지질학자가 단 한번의 측정으로 그 결과가 지질시대표의 수치와 일치했다면 어떻게 할까? 그 지질학자들은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지질시대표의 연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샘플들에 대하여는 오염 원인을 모른다고 여기거나 오염되었다고 여기면서, 지질시대표와 일치한 자신의 샘플 연대들을 채택하면서 어떻게 이 샘플만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자신의 전제 안에서 선택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이다!

논문에 발표되기 이전까지 존재하는 이런 숨겨진 사실을 모르는 채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과학자나 비과학자나 단지 논문에 실린 숫자만 본다. 그러므로 방사성 연대측정이 지질시대표의 연대를 지지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지질시대표의 시대는 더욱 잘게 나눠지고 있고, 그만큼 연대도 더 잘게 나뉘어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고생대 캄브리아기는 단지 하나로 구분되어 5억 4천만 년 – 4억 8천 5백만 년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지금은 캄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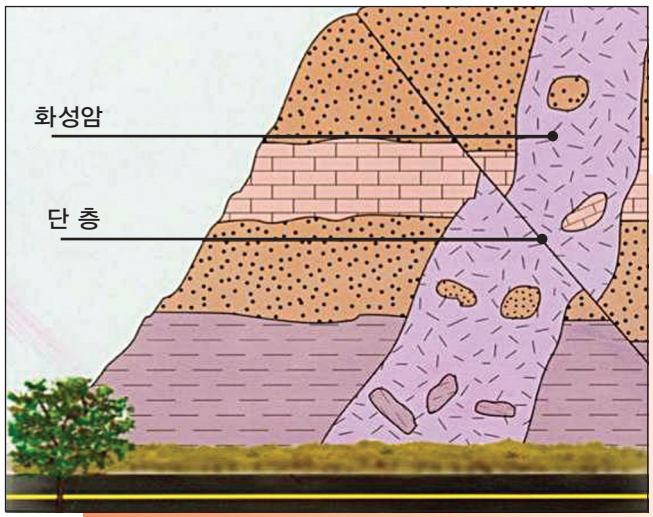
고생대 캄브리아기의 세밀한 분류. 오른쪽 숫자가 진화론적으로 가정한 연대(백만 년 단위)이다.

아기 한 시대가 열 개의 짧은 단계(stage)로 더 잘게 나누어짐으로 그 연대 또한 그만큼 더 세밀해(!)졌다. 지질시대를 이와 같이 더 잘게 나뉘었기 때문에 측정 결과들이 연대들과 일치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버려지는 데이터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는 연대 측정 기술이 덜 발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질시대표가 지구가 겪었던 실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현실이라는 말이다.

4. 직접 측정하지 않는 화석과 퇴적 지층

앞서 언급한 것처럼 C14 방법은 측정 대상이 탄소를 함유한 유기물이며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수천만에서 수십억 년 되었다고 여기는 화석을 C14로 측정하지 않는다. 또한 긴 반감기를 가진 Rb, U, K 측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용암과 관련된 화성암이 측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퇴적 지층의 연대를 이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지질시대를 일차적으로 퇴적 지층을 가지고 구분한다. 지질학자들은 퇴적 지층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하는데 바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한 방법이다. 이해를 위해서 아래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자.

그림과 같은 야외에서의 모습을 보며 지질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지질 역사를 해석할 것이다: '지층의 퇴적 작용이 모두 마친 후에 기존 지층을 뚫는 화성 작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기존 암석들 모두를 상대적으로 이동시킨 단층 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상대적인 지질 순서는 당연히 옳은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대 측정 대상은 퇴적 지층을 뚫고 있는 화성암뿐이다! 나머지 퇴적 작용이나 단층 작용이 일어났던 시대는 측정 불가능하다. 퇴적 작용의 기간, 그 다음 얼마 후에 화성작용이 있었는지, 또 얼마 후에 단층 작용이 일어났는지 그 절대적인 연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지 진화론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수평으로 된 것들이 퇴적 지층이다. 그리고 수직으로 화성암이 그 퇴적 지층을 뚫고있다. 그리고 사선으로 된 선이 상대적으로 이동된 단층을 보여준다.

이는 성경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

아울러 야외에서 위와 같이 퇴적 지층과 화성암이 단순하게 구분이 되는 곳은 드물 뿐만 아니라, 지질시대의 모든 퇴적 지층들이 그림과 같이 화성암과 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이 퇴적 지층과 화성암의 관계가 절대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단지 이 글에서 언급된 예만이 아니다. 표준화석, 지층의 형성, 연대측정의 기본 가정들 등 수많은 가정과 편견들이 숨어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여기서 언급된 현실적 문제점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을 그리 문제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 고민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질시대라는 거대한 전제에 동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대 지질학이 지질시대표라는 그릇된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질시대표의 엄청나게 긴 나이들을 보며 지구는 수십억 년 되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성경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게 되었다. 이어서 교회 안에서 조차 진화론자들과 동일하게 지질시대표의 연대를 사실로 전제하며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과 같은 타협이론을 만드는 결과도 낳았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CT News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10월 6-13일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10차입니다. 늘 그러듯이 각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부터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는 운석구(Meteor Crater)와 규화목-페인티드 사막 국립공원(Petrified Forest and Painted Desert National Park)도 경유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초교회적으로 모집을 하여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2017년에는 5월 26일 -6월 1일에 진행합니다.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창조과학세미나

빙햄튼 한인침례교회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0월 21-23일 뉴욕주 빙햄튼 한인침례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총 다섯 번의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주로 유학생들로 구성된 교회로써 시종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개인과 사회가 얼마나 진화론에 젖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한 진리인 성경을 믿고 있음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동대학교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0월 29, 30일 양일간 한동대학교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기원에 관한 질문', '지구의 나이', '진화의 반대' 등 8개의 주제로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 진지했으며 강의 뿐 아니라 질문과 응답을 통해 성경이 우리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 기독교가 유신론적 진화론류에 의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런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책임과 또한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이번 세미나의 성과와 그 중요성이 인식됨으로 인해 매년 이

와 같은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017년에는 3월 24, 25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한동대학교 '창조와 진화' 강의도 진행했으며, 그동안 ITCM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반갑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한동대학교 창조과학 동아리인 두두스와 ITCM 훈련생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재만 회장 한국, 홍콩, 일본, 괌 방

이재만 회장은 11월 한 달간 한국, 홍콩, 일본, 괌을 돌며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역에 관한 미팅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성과가 있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Bill Hoesch 영어권 사역

지난 10월 13일 Bill Hoesch 강사는 칼스테이트대학 롱비치 캠퍼스에서 50여명의 학생들에게 "Six Trade Secrets of Science"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로마서1:20의 말씀대로 피조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것을 지지하는 과학적 많은 증거들을 소개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대해주신 KCCC와 Estel Koo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ANC온누리교회 주일 아침 예배(EM)에 초청되어 같은 주제로 증거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룹임에도 강의를 잘 수용하고, 그랜드캐년 탐사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황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창조과학학교

10월 27일에는 창조과학그룹스터디를 하고 있는 1.5세 그룹에게 "Plate Tectonics and the Global Flood" 강의를 통해, 전지구적인 홍수의 과정과 판구조적인 운동의 깊은 연관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창세기의 노아홍수가 단 한번의 전지구적인 대격변임과 그것의 지질학적 증거들이 매우 많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행사들은 모두 다음 강의 일정을 예약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리에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에서는 지난 9월 21일 시작된 제 21기 창조과학학교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매 수요일 저녁 순복음 시카고교회에서 두 분의 목사님과 30여명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땅의 역사와 그 증거들을 나누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끝까지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처음 조상**은 누구인가?

필트다운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골이 있었다. 1908년부터 1912년까지 당시 런던 박물관장이었던 우드워드(Arthur Woodward)와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였던 찰스 도슨(Charles Dawson)이 영국의 필트다운 마을의 자갈 구덩이에서 아래턱뼈와 두개골의 일부를 발견했다. 이들은 이 뼈들을 1912년 런던지질학회에 초기 인류의 화석으로 보고하였다. 발견된 두개골은 사람에 가깝고, 아래 턱뼈는 원숭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필트다운인은 순식간에 인정을 받으며 ≪브리태니커사전≫에 인류의 중간종으로 기재되었고, 세계 각국의 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며,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 인류의 조상으로 삽입되어 가르쳐졌다.[1]

1925년 미국 테네시 주에서 열렸던 스코프스 재판에서 필트다운인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 재판에서 비록 진화론측이 패하기는 했지만, 실상은 미 전역에 진화론을 옹호하는 신문 기사가 실리고, 미국에 진화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도 필트다운인은 인류의 조상 화석이라는 권위로 학문계와 교육계 등에 수십 년간 진화를 옹호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그런데 한참 후에 필트다운인은 인류학계 최고 수치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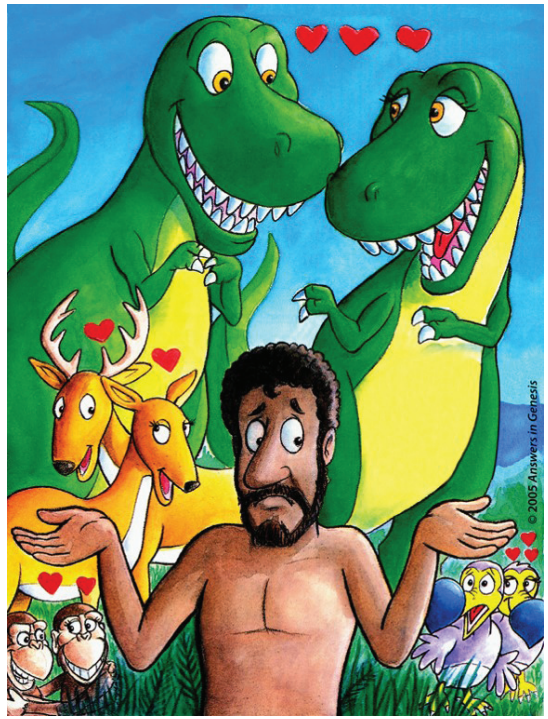
운 조작사건으로 조용히 판명되었다.

1953년 이 화석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2차조사위원회가 유골을 분석한 결과 필트다운인의 유골은 5년된 원숭이 턱뼈와 사람의 두개골을 조립해 만든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두개골은 중크롬산칼륨으로 변색처리되었고, 치아는 줄톱으로 연마한 흔적을 갖고 있었다.[2] 인간의 치아와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 이 이빨들을 끌로 갈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긴 송곳니는 너무 많이 갈려서 신경이 노출되어 있었고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 메꿔져 있었다.[3] 후에 알려진 바로는 이 조작 사건에는 당시 영국의 저명한 해부학자인 케이스(Arthur Keith), 셜록 홈즈의 저자인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 유신진화론자인 샤르댕(S. J. Telihard de Chardin) 신부, 그리고 영국 자연사박물관 동물학부 책임자였던 힌턴(Martin A.C. Hinton) 등도 함께 연루되었음이 지적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인류학계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인류를 연구하는 학문계에 얼룩져 있는 것일까? 단지 인류의 조상이 궁금해서일까? 그들은 무엇을 찾았던 것일까? 그들은 사람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한 화석을 찾으려 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인류의 조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쯤 되는 어떤 존재이다. 흔히 호미니드 또는 원인(ape-man)이라고 불린다. 진화학계에 있어 인간 조상의 조건은 인간도 닮아야 하고, 원숭이도 닮아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1800년대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향력 하에 인류의 조상에 대한 설명을 들어오고 있다.

1860년에 토마스 헉슬리(Thomas H. Huxley)는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과 영장류 사이의 해부학적 유사성을 찾아 인간이 침팬치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영향을 받아 1871년 다윈(Charles Darwin)은 ≪인간의 후손≫에서 인간의 아프리카 기원설을 내세우며 침팬치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을 한다. 그 무렵 독일에서는 헤켈(Ernst Haekel)이 현대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하며 원숭이와 사람의 배발생이 유사하다고 제시한다. 그는 이것을 진화가 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4] 19세기 후반 이러한 일련의 거센 분위기는 인간이 원숭이나 침팬치와 같은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로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기 힘들게 했다.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쯤되는 것으로서 처음 발표된 화석이 자바 원인이다. 1891년 유진 듀보아가 인도네시아에서 발굴하여 자신의 스승 헤켈에게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노라고 환희에 찬 편지를 썼다. 그 후 세계 각처에서 이런 식의 발굴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100년 뒤 ≪타임≫지의 결론은 이렇다.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에 불과하다"[5]

이렇게 진화의 증거들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화석들이 수십 년동안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다가 사라지고, 백과사전에 실려 있다가 빠져버렸다. 한 세기동안 박물관에 자랑스러운 전시물로 걸려있다 제거되곤 한다. 그것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화가 과학적 사실일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겨 놓았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록 잘못된 증거물들이 사라졌다해도 허위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 진화라는 신념이 여전히 견고한 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부인할 수 없이 그러한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던 분의 증언으로 인간이 인간 비슷한 어떤 과도기적 단계를 결코 거치지 않았음을 가르치고 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창2:20) 아담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동물들을 면밀히 살펴 이름을 지어주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사람과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피조세계에 아담 외에 인간같은 존재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비로서 아담은 형상이 같은 짝을 만났다. 의심할 바없이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이다. 진화라는 거짓된 신념을 벗어버리면, 이 답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다.

노휘성 / 과학교사

[1], [2]임번삼, 창조과학원론(상), pp. 235-236한국창조과학회, 2007
[3] Ham 외, War of the Worldviews, Ch4, 2005
[4] 김기환, 생물의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p.144,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 2008
[5] Michael D. Lemonick; How Man Began?, Time, March 14, pp35-41, 1994

창조과학탐사

간증 / 이랑학교

9/26~10/1, 2016

나중에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님처럼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진짜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전할 수있는 사람이 되고싶어요. 혹시 나중에 선교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이번 탐사 때 창조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이하경 〈이랑학교〉

이번 창조과학탐사 중학생 때부터 정말 기다렸는데 드디어 참가했네요! 아빠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다음엔 정말 꼭 모시고 와야겠어요. 창조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훨씬 많아지고 탄탄해진 것 같아 앞으로나 지금의 신앙에 가졌던 약간의 불안감이나 부담 같은게 많이 없어졌어요.
-정소이 <이랑학교>

전해주신 '처음이 좋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라는 그 말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창조, 공룡, 홍수, 인종, 언어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전해 주셨는데 다 적어놨으니깐 학교가서도 잊지 않고 보겠습니다.
–정시열 〈이랑학교〉

성경은 사실이고 이것을 믿어야만 되고 이것을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훈 <이랑학교>

내 또래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강의를 한 번만 듣는다면 생각이 바뀔텐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주변에도 아직 하나님의 창조의 대단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창조과학탐사에 전부 모시고 와야겠어요.
–한지혜 〈이랑학교〉

이번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서는 한가지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고 들은 많은 걸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이름만 아는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꼭 알리고 다시 rejoice in the Lord 할 수 있게 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일 〈이랑학교〉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6/2017 ACT Schedule

12/14	창조과학세미나(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22-2/18	제 8 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8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2/21-27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3/27-30	창조과학탐사 (텍사스교회협의회), 이재만
3/30-4/7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4/10-15	창조과학탐사 (명성교회), 이재만
4/16-22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9-16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8-6/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4-9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12-20	창조과학탐사 (기쁨의동산교회), 이재만
6/21-25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